

대전충남 지역문학의 형성과 매체

송기섭*

차례

1. 지역문학과 매체
2. 지역문학의 전통과 인간 매체
3. 인쇄 매체와 지역문학
 - 3.1. 지역 신문과 지역문학
 - 3.2. 지역 잡지와 지역문학
4. 소수 매체의 활로와 문학

1. 지역문학과 매체

지리적 공간을 분할하는 지역문학은 어떠한 준거에 의하여 작은 단위들로 세분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지역을 다른 지역과 분할하여 고유한 문학적 단위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특징과 가치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 지역문학은 행정 단위에 의하여 그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이 구도에 따르자면, 지역문학은 그 자체의 분권적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기 이전에 중앙 집중적 관리체계에 종속된 하부 조직이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직적 위계 구조에 지역문학이 위치한다면, 그것은 획일적 담론을 생산하는 중앙문단의 쇄말 단위에 지나

* 충남대학교 교수

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학이 “집단적 발화와 구별되는 이러저러한 발화 행위로서의 개별적 발화”¹⁾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감을 생성해야 할 터이다. 행정 조직의 분할구도에 의하여 그 이름이 명명되었지만, 그러한 위계 구조에 예속되지 않고, 고유의 장소감을 소수 집단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가장 잘 발견하고 또한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이 문학이다. 지역문학은 한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장소의 인접되고 영속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문학은 그 지역만의 감정과 가치를 탐구하는 풍요로운 문화의 장(場)을 열어나갈 것이다.

광역 자치의 경계를 나눌 때 대전·충남은 흔히 나란히 묶여 지칭되곤 한다.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직할시로 분리되기 이전까지 대전과 충남은 하나의 광역단체에 통합되어 있었다. 적어도 근대문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두 지역은 하나의 문학 경계에 수렴된다. 충청도가 충남과 충북으로 나누어진 1896년 이후 일백여년 동안 대전과 충남은 동일 행정 구역에 속해 있었다. 충청남도로 지칭된 이 기간은 중세가 붕괴되고 근대가 형성된 혁신적인 역사 변동기였다.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전환기에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에 묶여있던 연고로, 이 두 지역의 근대문학 형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32년 충남의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전은 충남의 문화적 구심이 된다. 그리하여 대전은 충남문학이란 지방문학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생산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한다. 충남지역 문인들은 문학적 유통과 사교의 주요 거점으로 대전을 삼게 되며, 대전의 도시 확대와 더불어 그 집중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대전문학』에 연재되는 최문휘의 「대전문단 이면사」²⁾는 이러한 지역 문학 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

-
- 1) 들뢰즈·가타리,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현경 역, 문학과지성사, 1992, p.35.
 - 2) 최문휘는 「대전문단 이면사(裏面史)」를 『대전문학』 40호(2008년 8월)에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해방을 기점으로 대전문단의 형성과 활동상을 에피소드를 곁들여 기술하고 있다. 이 문단사는 『대전문학』 45호(2009년 9월)에 6회째 연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1970년대 전후까지의 대전충남 문단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 대전·충남문학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회고록 형식의 「대전문단 이면

다. 특히 대전과 인접한 공주, 논산, 조치원 등은 대전문단과 더욱 친밀하게 교류하고, 때로는 이입되면서 문학적 담화공동체를 결속력 있게 유지하게 됨을 그는 잘 술회하고 있다.

대전·충남 지역문학은 한국문학이란 중앙문단과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자신의 경계를 창출하게 된다. 지역문학이 자신의 영토를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분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 환경의 분할에 의해 그것의 영토성이 구획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문학이 고유한 가치와 정서를 지닌 독자적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지리적 경계 안에서 소통되는 매체가 요구된다. 매체는 그것이 소통되는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동화시킨다. 와이만은 매체가 사회 집단과 준거 집단의 대체물³⁾이라고 단정한다. 매체가 그것이 소통되는 집단 내의 규범이 되어 버리고 의미가 되어 버리는, 강력한 통제적 구성력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와이만의 매체 효과는 지역문학의 매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전·충남 지역문학은 행정 조직이나 지리 환경에 의해 그 독자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소통 경계에 의하여 그것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그 지역 매체는 행정 단위와 지리 환경과 별개로 창출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조건하에서 만들어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아울러 지역문학이 그 곳의 정서를 이루는 생태 환경을 비롯하여 역사적 배경, 의식이나 이념의 변천, 상상의 구조 등을 표현하며, 중앙과 별개의 것이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⁴⁾된 독자적 양식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바탕 위에서 지역 매체와의 긴밀한 관련성은 논의되어야 한다.

충남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발행한 지역신문이나 저널들은 대전·충남의 지역문학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가장 중심적인 매개적 기능을 담당한

사」는 대전과 충남의 지역문학이 하나의 연원을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3) 가브리엘 와이만, 『매체의 현실 구성론』, 김용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48.

4) 양영길, 『지역문학과 지역사 인식』, 국학자료원, 2006, p.94.

다. 매체는 그것이 소통되는 지역 사람들의 인지력, 언어,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대전·충남 지역에도 매체가 형성되면서 지역 단위의 공동 담론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준화'⁵⁾를 잠재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충청지역의 신문은 1909년 8월 9일 창간되는 『삼남일보(三南日報)』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연원은 꽤나 깊은 셈이다. 『삼남일보』는 1935년 『중선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해방에 이르기까지 간행된다. 그러나 『중선일보』는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발행된 신문으로 해방 이후 그것을 인수한 좌익계에서 발행한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지역 언론의 시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정에 의해 몰수되어 한글로 발행하게 되는 『동방신문(東邦新聞)』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터이다. 문학과 관련된 저널 또한 해방이 되고 1946년 10월에 창간되는 『향토(嚮土)』가 최초이다. 이렇게 대전·충남의 지역 매체는 해방이 되어서야 비로소 민족의 주권을 견지하는 지역 소통 체계를 갖추게 된다. 매체는 우리가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경계 내에서 사회화되고 필요한 때 변화에 가담하도록 도와준다.⁶⁾ 이에 따르자면 충청지역의 매체 형성도 곧 그것의 영향 권역에 있는 담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문학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이 지역 소통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지역 매체의 발생과 더불어 비롯된다.

2. 지역문학의 전통과 인간 매체

근대적 매체가 보급되고 이를 통해 문학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근대문학의 제도에 지역문학 또한 통합되어 간다. 지역문학은 지

5) 근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균질화시키고, 아울러 생각과 감정을 획일화시킨다. 베르너 파울슈티히는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황대현 역, 지식의 풍경, 2007)에서 인쇄 매체가 그러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통찰한다. '문화적 표준화'는 여기서 문화의 천편일률화를 가속시키는 근대 인쇄 매체의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제기한 용어이다.

6) 가브리엘 와이만, 앞의 책, p.33.

역 매체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매체의 중앙 집중적 편중 현상⁷⁾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개체적 견해나 성격이 주류에 동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매체가 독자 영역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한 시대, 혹은 한 사회의 다층적 삶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주류화는 동질화의 과정이고, 여러 갈래의 견해를 흡수하는 과정⁸⁾이며, 차별적인 소수자들이 수렴되는 과정이다. 지역 매체는 중앙 매체에 의하여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해 나가는 주류화 과정에 제동을 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소통될 다성적 담론을 생산하게 된다.

대전·충남의 지역문학 역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과 잡지의 출현에 의하여 형성된다. 신문과 잡지 등 근대적 인쇄 기술에 의해 발행되는 미디어는 기존 문학 형식과 문학의 소통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학 양식과 문단을 잉태하게 된다. 새로 출현한 매체는 새로운 개혁 요소로 작동하면서 그것을 공유한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킨다. 이는 대전·충남의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두루 해당하는 변화 과정으로 해방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재편성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같은 속성의 매체가 보급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이 다소 다를지라도 비슷한 양상을 드러낸 까닭이다. 근대적인 인쇄기술을 사용한 인쇄매체가 지역에 보급되는 시기와 양식은 광역 단위로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근대적 인쇄매체는 구술언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통 사회의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낳게 된다. 곧 인쇄매체라는 소통 매체의 등장과 발전은 단순히 정보교환에 있어 새로운 수단의 추가라는 이상의 의미⁹⁾를 지니게 된다.

7) 『한국통계연감』에 조사된 잡지의 경우를 보면, 제1공화국 수립 이후 1950년대 전반에는 70% 이상,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는 80% 이상이 서울에서 발행됨을 통계 지표로 드러내고 있다.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 잡지 발행의 중앙 집중은 지방에도 근대적 인쇄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한 집중 현상은 다른 미디어의 보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8) 가브리엘 와이만, 앞의 책, p.57.

해방이후 충청 지역의 문인들에게 신문과 잡지는 근대적 의사소통 체계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새로운 매체가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문학 유통 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하는 일이었다. 충청 지역의 중세 문학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간 매체에 의존한 친교의 장(場)에서 교환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야기 양식은 친밀한 감정과 인간적 가치를 지닌 인간 매체의 언어적 연행에 의해 산출되어 왔다. 쓰기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늘날에도 작품을 전하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초기까지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두루 유행한 시회(詩會)¹⁰⁾ 역시 언어의 시각적 배열보다는 언어의 음성적 감각에 의존한 문학 양식을 주로 생산해 왔다.

인간 매체에 의존하는 문학은 다른 문화 양식이 그러하듯 유통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 소통 회로가 확보되는 까닭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문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집단도 소규모 단위의 연고주의나 지역주의에 기대어 결성되어 있었다. 곧 중세의 지역문학은 향촌이나 씨족의 친교와 결집을 위한 시회(詩會), 또는 학맥(學脈)의 연원에 따른 유향자들의 재도(載道)를 위한 글쓰기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산포되어 있었다. 가령 기호학과 의 거점으로 이른바 회덕학림을 양성한 회덕의 경우를 보면, 씨족문학과 도학문학으로 지칭될 두 가지 양상의 문학장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씨족문학은 이 지역에 선초에 뿌리내린 진주강씨나 중기 이후에 번성

9) 김영희,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15.

10)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회(詩會)나 시사(詩社)는 진정한 지역문학의 구현을 가져왔던 중요한 문학적 활동이었다.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시회는 지역의 색채를 반영한 작품의 생산과 공유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의 문화를 제고하고 나아가 풍속의 교화와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 문화인들의 모임이었다. 19세기 이후 대전 충남 지역에는 이러한 시회가 공주, 대전, 서산, 논산, 청양, 부여, 천안, 예산 등 거의 모든 군단위에 산포되어 있었다.(박우훈·이영휘·이향배, 「19세기 이후 대전 충남지역 한사회 활동 조사연구」, 『어문연구』 41집, 2003.4, pp.105-116 참조)

하는 은진송씨에 의해 주도된다. 진주강씨는 금강변에 죽림정(竹林亭)을 짓고 「죽림정 연구(聯句)」 12운(韻)을 짓는데, 회덕 입향조(入鄕祖) 강문한(姜文翰)의 증손 열두명이 글짓기에 참여하고 있다. 은진송씨의 경우는 자신들이 세거하는 지역을 송촌이라 부르고 이 지역을 연고로 삼아 지어진 종친들의 시를 모아 『송촌시첩』을 엮고 있다. 지역문학이 진정 그 지역의 깊은 친밀 경험과 장소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엮어내는 문학¹¹⁾일진대, 씨족 단위로 촌락을 형성하여 살아가던 이들의 문학이야말로 지역문학의 원류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도학문학은 도학자들의 정신을 표현코자 하는데 이 또한 지역의 정경이나 정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회덕은 기호학파의 주요한 활동 지역이었던 만큼 이 곳을 연고로 하는 도학자들이 깊게 유대를 맺었던 문학적 장소이기도 했다. 도학자들은 강렬하고도 심오하게 이 의미 있는 장소와의 경험을 표현한다. 그들에게 회덕이란 장소는 세계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태도를 투영하는 기본적인 대상으로 여겨진다. 가령 기묘사화에 연루되었던 김정을 차운(次韻)하여 시를 짓는 송인수의 경우를 보면, 장소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의지를 불사른다. 그 역시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으니 시로 연결된 두 사람의 운명이 같았다고 이를 것이다. 선비들의 휴식과 사교의 공간이었던 누정(樓亭)을 통해 이루어졌던 작시(作詩)와 음송도 지역문학이 생생하게 펼쳐지던 주요한 양상에 해당한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중세의 지역문학은 몸, 즉 인간 매체를 활용하여 만들어지고 소통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인간 매체는 근대 초기에도 명백히 집단적인 구전전통 전수의 중심에서 있었고 동화, 이야기, 역사 및 마을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전해 주는 중심 미디어였다.¹²⁾ 문리(文理)를 터득하고 있는 식자 계층에서 그것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중세의 지역 문학은 인간 매체에 여전히 의존해 있었다. 근대 초기 석판 인쇄술이 도입되고 종이 수급 형편이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지역 문학은 누정이나 시회 같은 만남을 통해 실행되는 인간 매

11)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p.50.

12) 베르너 파울슈티히, 앞의 책, p.188.

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인간 매체에 기대인 지역문학은 근대적 인쇄술과 만나면서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이를 테면, 1933년에 대전에서 창설되는 <이문사(以文社)>는 임헌회 편 『오현풍아(五賢風雅)』, 이기복(李基福) 편 『임천세고(林川世稿)』 정동환(鄭東煥)의 『백락유고(白洛遺稿)』 등 도학자나 문중 세손(世孫)들의 한시문 전적(田籍)을 주로 출판한다.¹³⁾ 여기 씌어진 글들은 원천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전제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피화자를 지향하고 있다.¹⁴⁾ 시회의 활동을 집적하여 편찬한 『천안한시사운집(韻集)』(1964), 『금성시집』(공주, 1968), 『금남시사집』(청양, 1968), 『덕산시사집』(예산, 1971), 『서림풍아집(西林風雅集)』(서천, 1975) 등 한시집도 인간 매체에 의해 교환된 지역문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겠다.

근대적 인쇄매체가 보급되기 이전의 지역문학은 인간 매체에 의해서 형성 유지되고 있었다. 대전·충남을 포괄하는 호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몸에 의존하는 문학 형식이 친교의 장(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그것은 구술 전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문자로 기록된 시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자층의 시문도 상당 부분은 인간 매체에 의해서 교환되고 전파되었다. 시문 기록으로 남겨지기 이전에 누정이나 시회(詩會)에서 음송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매체에 의존하는 시문(詩文)은 고독한 개인의 내면을 향하여 깊어지기보다는 열려진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울려 퍼졌다.

혈족 간의 송조(崇祖) 돈목(敦睦)을 위하여, 학문 연원에 따른 종유(從

13) 안세영은 「광복이전의 출판」(『대전시사』 제1권, 1992, 815쪽)에서 해방 이전 대전의 유일한 출판사로 이문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전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출판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917년 12월 대전 순보사(瞬報社)에서 『朝鮮大田發展誌』를 낸 기록을 보면 당시 대전에도 출판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노병성, 「대전의 출판문화」, 『대전문화』 제3호, 1994, 267-8쪽 참조)

14) 해방이전 출판의 주류를 이루던 문집류는 시(詩), 서(書), 제문(祭文), 묘지문 등으로 편집된다. 편지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의 경우도 차운(次韻)을 하거나 증답(贈答)으로 피화자를 명시하면서 지어진다.

遊) 문생(門生)들의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위하여, 혹은 향촌 사회를 이끌던 유력 유자(儒者)들의 권덕(權德) 상호(相助)를 위하여 문학이 소용되었고, 그에 따라 유통되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장소였다. 이렇듯 가치 있는 안식처에서 그곳의 정취와 사람을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은 지역문학을 만들어냈고, 또한 향유했다. 이렇게 인간 매체에 의해 유지되던 지역문학은 새로운 매체 환경이 조성되자 급격히 변모하게 된다.

3. 인쇄 매체와 지역문학

해방 이후 대전·충남의 지역문학은 근대적 매체로의 전이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근대적 제도에 의한 작품 발표가 시작되고,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 형성된다. 전통적인 글쓰기 매체가 신문과 잡지라는 새로운 글쓰기 매체로 바뀌면서, 문학의 형식과 문학 담당 주체가 바뀌게 된다. 구술에 의존하던 문학이 글쓰기 방식에 의해 주도되면서 개별적으로 사고하는 내면성을 낳기도 한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 매체는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 소통되던 인간 매체와는 다른 방식의 문학 유통 체계를 낳았으며, 문학 담당층의 감정과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인쇄가 의식에 끼친 이 한층 미세한 영향들은 쉽게 눈에 띄는 사회적 영향들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하다.¹⁵⁾ 인쇄매체는 문학에 있어 새로운 소통 방식을 낳게 되는데, 작가, 독자, 그리고 유통 담당자가 분리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매체가 문학의 생산과 수용 시스템을 분화시키게 된다. 새로운 매체는 이렇게 외적으로 생산과 소비 체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내적으로 심화시킨다. 이는 작가나 독자 모두에 해당한다. 인간매체에 의해 구현되던 문학이 열린 장소에서 공통 감정과 의식을 지향한 반면, 인쇄 매체에 의해 구현된 문학은 폐쇄된 장소에서의 사적 개인

15)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p.180.

의 고독한 문해(文解)를 지향한다.

신문과 잡지는 근대적 인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광범위한 유통 기반을 확장해나간 근대의 저널이다. 해방 이후 호서지역에도 대전을 중심으로 신문과 잡지가 잇달아서 창간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되는 신문과 잡지는 이 지역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문인들에게 작품 발표의 주요 장(場)이 된다. 호서 지역에서 발행된 신문과 잡지는 이 지역민의 삶을 근대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혁신적인 매개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적 저널은 태생이 근대적이었던 까닭에 그 자체로 근대적 기질과 감수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¹⁶⁾ 글쓰기 매체가 근대적 매체로 변환되면서, 대전·충남에도 새로운 의식과 감정을 표현할 새로운 문학의 판이 형성된다. 이는 전통적인 문학의 유통 구조를 변모시키고 문학 담당층의 혁신적인 교체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모와 함께 문학의 표현 방식, 사고 내용, 심미 취향에 있어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다. 지역 매체는 그렇게 지역문학에 근대적인 인식틀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매체는 지역 문인들이 드나드는 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지역 문단은 이 주변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지역 매체가 제공하는 사교의 공간에서 지역 문단은 공동의 담화를 형성하고 자신의 영토를 구획한 셈이다.

3.1. 지역 신문과 지역문학

개화와 더불어 충청지역에도 신문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지방에서는 우편 배송을 통하여서나 구독할 수 있던 신문들이 지사가 설치됨에 따라 보다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부터 지사를 통한 전국 보급망을 확보하게 되는데, 일제강점 직전까지 충청지역에는 광천, 한산, 공주, 은진 등에 지사가 신설되었다.¹⁷⁾ 이 신문은

16) 김월희, 「신체산문과 근대적 매체의 상관성」,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p.244.

17) 김영희, 앞의 책, pp.50-51 참조.

지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개화층에게 뿐만 아니라 유학 지식층에게 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¹⁸⁾ 충청지역에 최초로 발행된 신문은 1909년 8월9일 간행된 『삼남일보』이다.¹⁹⁾ 전국 도청 소재지마다 지방지를 두고자 한 일제의 시책에 부응하여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어로 발행된 이 신문은 1935년 이후 해방까지는 『중선일보(中鮮日報)』로 발행되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충청지역에는 지역 담화공동체를 구성할 신문이 등장하게 된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가 그것인데, 이 두 신문은 오늘날까지도 제호(題號)를 유지하고 있는 충청 지역의 가장 주요한 일간지이다. 관보 성향을 띠었던 『중선일보』는 해방이 되자 『중앙일보』에 이은 『인민일보』로 발행되다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동방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게 된다. 해방 직후에 온양에서 주간지 『경남일보(京南日報)』를 발행했으나 1년을 넘기지 못했고, 1949년 대전에서 『호서신문』이 주간(週刊)으로 발행되었으나 이내 사라졌고, 『충청매일』 또한 그러했다.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방지를 열어간 것은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던 해 10월 3일 창간되는 『대전일보』와 이듬해 8월 24일 창간되는 『중도일보』이다. 전쟁의 급박한 상황은 경제적 고충에도 불구하고 두 신문이 기반을 닦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곧 이 두 신문은 전쟁통에 밀려든 피난민들에게 뉴스 거리를 제공했고 그들의 호응에 힘입어 신문사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던 셈이다. 이후 자유당의 비리와 혼탁한 사회상을 고발하면서 지역민의 각성을 촉구했으며, 「대전시는 북마전」이나 「도정(道政)은 비리의 온상」 등의 논단을 통해서 지역 자치 구현을 위한 지역 신문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충청지역에도 전통적인 문학 유통 구조를 변모시킨 새로운 매체가 신

18) 당대 전통 유반의 가통을 이어오던 수구파들도 신문의 구독자층에 유입되고 있음을 『근현대 대전충남 한학가의 문집해제』(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는 문집 해제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다.

19) 『충남 개도 100년사』(894쪽) 안영진의 「언론」에서는 1909년으로, 『대전시사』 제1권(813쪽) 안세영(安世永)의 「언론출판」에서는 1911년으로 충남 회덕군(현 대전)에서 호남일보사가 설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문이다. 해방 이후, 민족 의식에 단련된 언론인과 언론사가 출현하고, 국문에 의한 신문이 제작되면서 이러한 변모 양상을 가속화시킨다. 신문은 단순히 도구적이 아닌, 글쓰기 매체로서 지니는 사회학적이고 미학적인 특질을 구현할 매체 언어와 감수성²⁰⁾을 수반하고 있었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해방이후 충청 지역의 신문들 또한 지역의 문학을 쇄신할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미군정기 『중선일보』를 인수해 발간하게 된 『동방신문』은 충청지역 산문문학을 잉태하는 모태가 되었다. 편집국장인 황린을 포함한 박희선, 양기철, 전형 등 대전문단의 시원을 이루는 지역 작가들이 연쇄적으로 단편소설을 게재하면서 지역문학의 생산과 전승 시스템을 열어놓는다. 초기 소설문학에 있어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작가가 염인수²¹⁾이다. 그는 이보다 앞서 『중선일보』의 후신이라 할 『인민일보』에 관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여, 중앙 저널인 『민성』에 「감자」, 『신천지』에 「작은 선풍」, 『예술조선』에 「기다리는 마음」 등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 이후 지역 저널인 『신성(新星)』과 『호서신문』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충청지역 저널을 글쓰기 매체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대전문단을 형성한 초창기 멤버들도 신문과 여러 형태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문학의 활로를 모색한다. 시인 전형(兪馨)과 황린(黃璘)은 『동방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내면서 창작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을 개척해 나갔다. 대표적인 충청 시인이라 할 박용래 또한 『동방신문』에 ‘향토시선’을 연재하게 되는데, 이는 송석홍과 전여해(全汝海)가 참여한 문학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충청지역에 진정한 지역 언론으로 뿌리 내리게 되는 신문은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이다. 『대전일보』는 1950년 11월 1일 타블로이드판으로 창

20) 김윤희, 「신체 산문과 근대적 매체의 상관성」,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상원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p.247.

21) 염인수는 육이오 전쟁 때 대전문학가동맹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 여파로 심한 고초를 겪는 그는 은거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활동을 재개한다. 그리하여 『깊은 강은 흐른다』(1980), 『장위고개』(1983), 『회고』(1987) 등의 소설집을 간행하게 되는데, 그의 행적과 작품 세계는 대전일보 김재근 기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염인수(廉仁洙)와 대전·충남의 해방공간 문학』(『호서문학』 제19집, 1993.10, 146-167쪽)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된다.

간되었는데, 『문예』로 등단한 소설가이자 방송극작가인 추식(秋澁)이 편집국장을 담당하였다. 발행 초기 주로 전쟁 뉴스로 채워졌던 신문은 거리판 매에 의해 대부분 구독자에게 전달되었는데, 피난 유입 인구가 많았던 까닭에 하루에 일만부 이상을 찍으면서 보급망을 확장시켜 나갔다.²²⁾ 국문 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지현영은 1962년 사장직을 맡으면서 충청지역 문인들의 지면을 확대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신춘문예를 모집하여 윤대녕, 이정록 등의 문인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중도일보』는 1951년 8월 24일 창간되어 박정희의 언론 통제함에 폐간되었다가 1987년 복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역신문이다. 추식은 『대전일보』에 이어 『중도일보』에서도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극작가 임희재도 육이오 직후 『중도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대전의 문인들과 교유한 바 있다. 충청 지역 언론을 대표해온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는 지역문학에 있어서는 주요 장르라 할 수필문학의 전개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지역 문학 형성기 전형, 광철, 지현영, 권선근, 홍재현, 김제영 등²³⁾은 이 두 신문을 통하여 주로 에세이를 발표하였다. 이후 「한발춘추」라는 에세이 고정란을 신설한 『대전일보』뿐 아니라 『중도일보』에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인 안영진, 송백현, 조남익, 송하섭 등의 글이 자주 발표되었다.

한국의 근대문인들은 신문과 잡지 같은 인쇄 관련 업종에 근무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해방이후 지역문인들도 그와 같은 문인 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는 대전에 거주하는 문인들의 글쓰기의 장(場)이자 또한 생계를 도모할 직장이기도 했던 셈이다.

3.2. 지역 잡지와 지역문학

잡지의 구매 능력이 저조하였던 까닭에 지역에서 잡지를 창간한다는

22) 변평섭, 「대전의 언론 출판」, 『대전 100년사』 제4권, 대전광역시, 2002, pp.3237-3238.

23) 송백현, 「수필문학사」, 『대전문학사』,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지회, 2000, p.173.

일은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다. 지역 문화를 제고하려는 헌신적인 뜻을 모아 잡지를 창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다보니 『대전일보』나 『중도일보』 같은 오랜 연원을 갖고 있는 지역 잡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충청』, 『청풍』, 『중도포커스』 같은 잡지가 지역 시장을 확보해 왔으나 현재는 모두 재정 악화로 발행 중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지역 잡지가 산발적으로라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문학인들의 결집과 헌신 때문이다.

『향토』는 충청지역의 첫 잡지로 1945년 10월에 발간된다. 대전 충남의 문학은 『대전일보』의 전신이라 할 『동방신문』과 종합지인 『향토』가 발간되면서 그것을 주동해 나갈 문단을 형성²⁴⁾하게 된다. 『향토』는 정훈이 ‘향토시가회’를 조직하여 배주 낭송회와 합평회를 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발행한 프리트판 2호로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향토』에는 시, 소설, 수필, 그리고 시론(詩論)이 수록되면서 대전문단 형성의 산과 역할을 하였다. 『향토』에 이어 지역문학의 형성에 기여한 잡지가 1946년 7월에 창간된 『동백』이다. 이 잡지는 박희선과 박용래의 주도로 간행되었는데, 이재복, 정해봉, 송석홍 등 지역문인뿐만 아니라 이병기, 김구용, 김소운 등 다른 지역 문인들의 글도 수록하고 있다. 시집에 누락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박용래의 『새벽』²⁵⁾이 게재된 것도 『동백』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발족한 죽순 시인 동인회와 진주의 등불시회와 교류²⁶⁾를 활발히

24) 최문회는 「대전문단 이면사」에서 해방 이전에 대전에서 문학 활동을 한 문인을 시인으로 정훈(丁勳), 전형, 지현영(池憲英), 희곡작가 양기철(梁基哲), 시조시인 권용경(權容敬), 그리고 좌익문인 황린, 임만빈(任萬彬), 민병성(閔丙成) 등 여덟 사람을 들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 지역 저널의 창간이나 운영에 관여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대전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좌파계 저널에 가담했던 염인수와 박희선의 고증에 의하면 해방 직후 충청문학의 상황은 조금 다를 듯하다. 잡지 『현대』나 『신성』, 그리고 신문 『인민일보』를 고려한다면 초기 대전문단은 좀더 복잡했었고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라진 부면을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25) 새벽 하늘/無限한 草原이다//가는 구름은/안개 속에 꿈을 깨인//羊의 群團//그들의 길목에는/峻崖이 懸崖 위에 百승송이 만양//이슬 품고 眞珠母色으로/머얼리/방울 혼든다.

넓혀나가면서 지역문학의 정체를 공고히 했다.

1947년 간행되는 『현대(現代)』와 『신성(新聲)』이란 잡지도 대전 지역의 문학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잡지는 신문 『인민일보』와 더불어 이 지역의 문학을 말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육이오 이후 이 지역의 문학도 좌파의 저널에 가담하고 활동했던 문학적 혼적은 소거되고 말았다. 『현대』는 황린, 박용래, 이병권, 안희남, 박희선, 염인수 등이 참여한다.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닌 젊은 지식인 그룹에 의해 창간된 이 저널은 반미(反美)와 반이(反李) 성향이 농후한 글들을 싣게 된다. 1947년 7월 19일 『현대』 2호에는 여운형을 추모하는 박희선의 「붉은 산맥」과 박용래의 「몽양선생 영전에」²⁷⁾란 추모시가 게재되고 시화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미가 되어 우익의 기습을 당하기도 한다. 『현대』는 오장환, 김남천, 안희남 등이 글을 기고할 정도로 명성을 얻어나갔으나 발행인이었던 이보영이 잡지의 색깔을 우려해 발행을 중단한다. 『현대』를 인수한 잡지가 『신성』인데, 참여한 문인을 보면 황린, 박희선, 이병권, 염인수 등 『현대』에 관여한 필진뿐만 아니라 정훈, 지현영, 양기철 등 대전문단의 문인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성』은 『현대』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첫호를 복간호로 출간하면서 진보적인 지역 잡지로서의 기초를 유지한다. 그렇게 활성화를 모색하였으나 『신성』 역시 2호로 폐간되고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문인들이 예비 검속에 잡혀가 행방이 묘연하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 문학을 버리고 은거하기도 하면서 충청지역 진보문학은 잊혀지게 된다.²⁸⁾

26) 최문휘, 「대전문단이면사」(2), 『대전문학』 41호, 2008.9, p.25.

27) 모자를 벗어라/너도 나도 당신도/朝鮮이 너의 어린 품안에/꽃도 피기前/人民의 指導者 夢陽 先生 가시다/政治도 學者도 雄辯家도 아닌/名譽나 지위나 호사스런 그런 것은/너군다나 아닌/毒한 彈丸 叛逆의 칼속/불길처럼 솟아오르는 眞情을 人民의 權利로/아로새긴 높은 行列의 旗幅에 퍼져가신 님/설주도 서기前/朝鮮아 너의 夢陽은/우리 指導者 夢陽 先生을/어느 먼 곳으로 여위야 했느냐/어두움에/빛과 함께 前進하는 못 작은 별들도/잠시 머리 숙여라/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先驅者의 피보다/슬픈건 있으랴/맑은 샘물이 설새없이 고이듯 坊坊曲曲 三千萬의 道掉가 腸了를 끓는 하늘 아래/무릎 꿇어/사람들/다시 옆드려라.

28) 김재근, 「염인수와 대전 · 충남의 해방공간 문학운동」, 『호서문학』 제19집,

전쟁이 지나면서 충청지역 문학은 고유한 문학적 정체성을 지닌 지역 문학으로써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지역 잡지 『호서문학』은 충청 지역의 문학적 경계를 가장 분명히 밝히고 지역문학을 옹호한 지역 문인들에 의해 간행된다. 그들은 1951년 11월 11일 호서문학회를 창립하는데, 이렇게 중앙 문단과 분리된 독자적인 문학 그룹이 조직되면서 충청의 문학은 지역문학으로써의 독자성을 더욱 분명하게 윤곽짓게 된다. 지역문학이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현상과 사건을 체험한 문인²⁹⁾에 의해 형성될진대, 호서문학회는 대전을 구심으로 하는 충청 지역의 문인들이 결집된 조직적인 기구로 출범하게 된다. 정훈을 회장으로 하여 한성기, 권선근, 강소천, 임희재, 원영한 등 50여명의 문학인으로 출범한 '호서문학회'는 1951년 8월 종합지 『호서문학』을 창간하면서 문학 자치를 구현할 지역문학의 구심체로 부상한다. 창간호에는 시부분에 정훈, 한성기, 임강빈, 강소천 등이 참여하고 소설부분에 양기철, 권선근 등이 창작 작품을 게재하고 있다. 여기에 김영수와 지현영이 평론에 가세하면서 『호서문학』은 충청 지역의 대표 문인들을 망라하게 된다. 이후 안세영, 김영덕, 박희선, 이교탁, 김대현, 신정식, 구상희 등이 가세하여 필진이 풍요롭게 확충되자 지역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저널로 발전하게 된다.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감정과 의미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 『호서문학』은 충청지역에 독자적 문학이 존립할 구체적인 윤곽을 조직과 문학실천을 통해 내보인다. 이러한 지역문학의 활발한 움직임은 동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전주의 '가람동인회'(1952), 서울의 '시작(詩作)'(1954), 강릉의 '청포도동인'(1955), 경남의 '청맥'(1955), 조치원의 '백수문학'(1956), 목포의 '시정신'(1956) 등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다.³⁰⁾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를 부각시켜 재생산함으로써 동일자의 전일적 논리를 부정하려는 이 탈중심화의 꿈틀거림이야말로 지역문학이

1993.10, pp.160-162 참조.

29) 양영길, 앞의 책, p.53.

30) 박명용, 「시문학사」, 『대전문학사』, 한국예총대전광역시지회, 2000, p.50.

본래 간직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동력일 것이다. 『호서문학』이 자신들을 지칭하기로 한 ‘호서(湖西)’는 충청도를 일컫는 고유한 지명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호명하는 고유한 지명을 따오면서 지역문학을 견인해 나갈 자신들의 주체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호서문학』은 1959년 2월 4집을 끝으로 1976년까지 발간이 중단된다. 회원들의 분열을 낳은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 몫 했지만, 중앙 문단과의 관계를 놓고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회원 간의 갈등을 낳은데 보다 큰 원인이 있었다. 이 사건은 충청 문인들도 중앙 문단에서 시행하는 등단 제도에 잠재적으로라도 종속되어 버리는 양상을 보여준 사례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한성기가 『현대문학』 창간호에 추천을 받은 이래 박용래와 임강빈이 잇달아서 중앙 문단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역 문학의 자생적 기반은 의문시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대전문단에는 고수와 혹은 전통파라는 부류와 등단파라는 부류로 나뉘어 호칭”³¹⁾되었다. 『호서문학』은 복간이 되면서 주로 비등단 지역문인이 활동하는 토속 저널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역문학은 등단뿐만 아니라 중앙 문단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문인들이 그 주도적 명맥을 이어가는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고 고착되어 나갔다.

창간호가 곧 종간호가 되었지만, 1967년에 간행된 『중도문학』은 박희선, 최원규, 조남익, 김정욱 등이 참여하면서 지역 문단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1962년 결성된 한국문협 충남지부에서는 1970년 『충남문학』을 창간하는데 대전문단에도 세대 분할이 이루어져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곧 지역문학의 초기 세대라 할 정훈, 지현영, 이재복, 박용래, 권선근을 비롯하여, 『호서문학』에 참여했던 김대현과 임강빈, 그리고 육십년대 이후 문단에 데뷔한 최원규, 조남익, 홍희표, 안명호, 신정식, 송하섭, 이대영, 장시종 등 총 34명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해방 이전부터 문학 활동을 하던 세대부터 문학에 막 입문한 세대까지 세대 분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세대들은 『호서문학』을

31) 최문휘, 「대전문단이면서」(4), 『대전문학』 43호, 2009.3, p.57.

속간하고, 『백지(白紙)』와 『시도(詩圖)』 등을 창간하면서 발표 지면을 확보해 나간다. 팔십년대는 『무천』, 『시심(詩心)』, 『동시대』, 『시인문학』, 『대전시단』 등이 간행되면서 지역문학의 활동 영역이 다양화된다. 중앙 독점적 문학 제도에서 벗어나 대안문화³²⁾로서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한 셈이다. 지역 문단의 독자성과 자기 규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연적인 조건이 지역 저널리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전문학과 충남문학도 외형적으로는 분리된다. 분리 이후 대전에는 『오늘의 문학』, 『서구문학』, 『대덕문학』, 『여성문학』, 『큰시』, 『풍향계』 등이 창간되면서, 전문작가뿐만 아니라 취미 차원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지역문학의 풍요로운 출로를 모색한다.

4. 소수 매체의 활로와 문학

지역 매체는 지역문학이 존립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 지역문학은 지역의 환경과 지역의 사람, 곧 지역의 삶을 표현하고 지역의 관심사에 반응하는 지역문화에 포괄된다. 지역문학, 나아가 지역문화의 풍요로움이 담보되지 않고 획일적인 다중문화에 포섭되어 버린다면 지역민의 고유한 존재 가치도 그렇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문화적 풍요란 각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확인된다.³³⁾ 지역문학이야말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주요한 문화 양식이다. 지역의 장소감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생성되는 정서를 표현하는 지역문학은 지역민의 생존을 현장감 있게 살려내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문학이 다수문학에 종속되거나, 그에 위축되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나아가서 활성화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 제고되어야 할 것이 지역 매체라는

32) 김문환, 『지역문화발전론』, 문예출판사, 1998, p.28.

33) 앞의 책, p.21.

것이다.

대전 충남의 지역문학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양상만 보아도 지역문학은 매체 효과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지역문학이 근대성을 취하는 단계는 매체의 근대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궤를 함께 한다. 인간 매체에서 인쇄 매체로의 혁신적인 변천이 전개되는 임계 지점에서, 지역문학 또한 근대적인 문학 양식과 제도를 구비함을 보게된다. 대전 충남은 해방이 되고, 우리말로 발행되는 『동방신문』이나 『향토』같은 저널에 의해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지역문학이 출범한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그리고 『호서문학』은 대전문단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글쓰기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지역의 영토를 구획할 매체 소통의 공간을 설정해 주었으며, 또한 지역 문인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의식을 조율할 담화의 공간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지역 매체가 자생력을 유지하면서 발행을 지속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영난을 타개하기가 어려웠다. 『동방신문』이나 『향토』, 『동백』의 폐간은 무엇보다도 저널 구매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경영상의 문제에 봉착한 까닭이다. 여기에 『중도일보』의 폐간에서 보듯, 정치적 강압에 의해 지역 저널이 침해되는 원인도 덧붙일 수 있겠다.

광복년대 이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역 저널들이 다양하고도 풍요롭게 창간된다. 시장 매출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발행이 가능한 출판의 조건이 형성되자 동호인 단위의 문학 저널들이 다양하게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출판비가 경제 수준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자 문학에 대한 취미의 차원에서 동아리 모임을 통한 출판이 다양하게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 각종 문예진흥기금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초단체 규모의 문학저널을 포함한 풍성한 글쓰기의 장(場)이 열리게 된다. 대전의 경우를 보면, 『대덕문학』이나 『서구문학』, 『갑천문화』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는데, 10호에서 20호까지 누적적으로 발행되면서 거의 빠짐없이 작품을 발표하는, 지역문학 잡지의 고정 필자로 자리 잡아가는, 이른바 중앙문단에 데뷔하지 않은 지역 문인들을 낳게 된다. 김영희, 이순복, 최일순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와 자신이 부딪치며 만나는

사람을 표현하고 또한 공유하면서 개인의 삶이란 결국 지역의 경험을 만
들어가는 여정임을 일깨워준다.

매체가 지닌 주류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하여 우
리의 사고와 감정이 동질화되고 있는 통제된 매체 환경에서 소수자의 목
소리인 지역 매체가 대안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란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
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
서도 지역 매체는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와 동일하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다원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인 기본 가치와 개인적 품
위를 지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지역문학은 소수 집단의 언어와 장소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재 조건인 고유한 자기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만든다. 다양성을 담보하는 이 독자적인 담론
환경이 중앙 매체의 주류화에 흡수되지 않고 고수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생하기 위한 별도의 매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지역 매체가 유
지되기 위해서는 자체의 운영에 대한 자구책 못지않게 문화 정책에 의한
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대전 충남, 지역문학, 매체, 국민문학, 다양성

<참고 문헌>

- 김문환, 『지역문화발전론』, 문예출판사, 1998.
 김영희,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월희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김재근, 「염인수와 대전충남의 해방공간 문학」, 『호서문학』 제19집,
 1993.10, pp.146-167.
 김화선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 노병성, 「대전의 출판문화」, 『대전문화』 제3호, 1994, pp.262-287.
- 박명용 편, 『대전문학사』,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지회, 2000.
- 박우훈·이영휘·이향배, 「19세기 이후 대전 충남지역 한사회 활동 조사연구」, 『어문연구』 41집 어문연구학회, 2003.4, pp.105-116.
- 박태일,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변평섭, 『대전의 언론』, 『대전 100년사』 제4권, 대전광역시, 2002, pp.3236-3242.
- 송기섭, 「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24호, 2005.4, pp.5-25.
- 안세영, 「광복이전의 출판」, 『大田市史』 제1권, 1992, pp.808-815.
- 안영진, 「언론」, 『충남 개도 100년사』, 충청남도, 1997, pp.894-910.
- 양영길, 『지역문학과 지역사 인식』, 국학자료원, 2006.
- 최문휘, 「대전문단 이면사」, 『대전문학』 40호, 2008.9.
- 가브리엘 와이만, 「매체의 현실 구성론」, 김용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들뢰즈·가타리,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현경 역, 문학과지성사, 1992, p.35.
- 베르너 파울슈티히,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황대현 역, 지식의 풍경, 2007.

<Abstract>

The Media and the Formation of Local Literatures in Daejeon
and Chungnam

Song Ki-seob

Local journals in Daejeon and Chungnam help local literatures

develop and play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two regions. As media has been built up in Daejeon and Chungnam, the media generate discourse a joint discourse. The first local journal on literature of these regions is Hyangto, first published in October, 1946. Local media played their role as a bridge only after the independence in 1945. Local literatures occur as local media are generated.

Local literatures reflect the cultures of the region including its environment and people. Standardized national literatures might threaten the indigenous value of the local people. Local literature indeed is an important culture style, which can develop the whole local cultures. Local literatures reflect the location, the emotions, and the lives of the region. To develop such local literatures, local media need to prosper.

Daejeon Daily, Joongdo Daily, and Hoseo Literatures had published many local literatures of Daejeon. In addition, they provided local writers with chances to become friends each other. After 1980s, many local journals which writers can submit their works to were founded. Daeduk Literatures, Seogu Literatures, Gapcheon Literatures and et cetera. They came to procure writers to write literatures for them regularly. It opened the chances for development of the local literatures to reflect local diversity.

• Key words: Daejeon and Chungnam, local literatures, media, national literatures, diversity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3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